

전략의 다양성... '너의 뒤에서' 역전 노린다

뛰어난 조종술과 순발력 필수 조건
전법 변화로 체력안배 위한 마크도
몸싸움 심해 낙차 유발도 많았지만
최근엔 앞선서 끌어내기 작전 즐겨



2번(흑) 선수가 1번(백)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경륜경주 모습. 마크 전법은 전개의 중심 선수를 타깃으로 전략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전법이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은 경정, 경마와 달리 상대 선수를 활용하는 '마크'라는 전법이 있다. 경정과 경마는 횡렬로 진행되는 반면 경륜은 종렬로 진행되는데 마크는 전개의 중심 선수를 타깃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결승 주로에서는 횡렬도 나타난다). 시원하게 경주를 주도하는 선형과 찢히기가 팬들에게 호쾌함을 준다면 상대의 뒤에서 막판 역전을 노리는 마크 후 추입은 짜릿함을 선사한다.

지구력과 힘에 의지하는 선형과 찢히기에 비해 마크는 뛰어난 조종술과 순발력을 요구한다. 나이가 들어 기량이 떨어지면 선형과 찢히기를 선호하는 선수들조차도 자연스럽게 마크 전법으로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며 마크 전법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마크 운영이 익숙하지 않은 축 선수들이 선형 선수의 뒤를 지켜내지 못하며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마크라는 전법은 전략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륜에 꼭 필요한 전법이다.

●마크 전법의 필요성

경기를 직접 주도하는 선형과 찢히기형 타임의 강자들에게도 마크 전법은 필요하다. 3일 동안 이어지는 레이스에서 매 경주 전력 질주를 해서는 자칫 체력적 문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활용할 수 있는 선형형 선수가 있다면 전법 변화로 체력을 안배하며 남은 경주에서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마크에 능한 축선수 또한 최근에는 마크에 대한 집중력과 더 발전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일명 끌어내기가 불리는 내선마크를 하는 도전 상대들 때문이다. 낮은 인자도로 좋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앞쪽에서 내선마크를 시도하는데, 예전에는 축 다음 자리를 노

렸다면 최근에는 축선수를 바로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번 마크 다름에서 밀리면 다음 경주에서도 반격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승을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마크 전문 선수의 실종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크 전법을 어느 정도 구사할 만큼 광범위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마크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퇴보한 면도 있다. 안전적인 경주를 지향하는 최근 흐름상 낙차가 유발될 수 있는 거칠고 적극적인 몸싸움을 동반하는 마크 운영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마크 다름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지며 경륜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마지막 한바퀴'의 김동우 경륜전문가는 "한때 특선급에서는 박일호, 우수급에서는 이유진으로 대표됐던 마크 전문 선수들 역시 최근에는 안전한 경주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직접 몸싸움을 걸기보다는 앞선에서 끌어내는 작전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2020년 경륜경정 이슈 정리

①코로나19로 멈춰 선 경륜경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초부터 확산되며 경륜경정은 2월 23일 임시 휴장한 이후 경륜은 8개월, 경정은 10개월 동안 사상 초유의 장기 휴장을 맞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인 10월 30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주를 재개했으나 3주 만인 11월 27일부터 다시 휴장 중이다.

②온라인 발매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합병 시행산업이 멈춰있는 틈을 노려 불법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 시대에 맞춰 경륜경정 등 경주류 사업에도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이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③정부 건전화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사행산업의 건전화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건전화 평가는 국내 9개 합병 사행산업 운영 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경륜경정은 2020년에도 각각 최고 등급(S)을 달성했다. 이로써 경륜경정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최초의 기관이 됐다.

④선수 인권 보호 및 안전 강화 노력

경륜경정 선수들의 안전·인권·처우 개선을 위해 TF와 인권 개선협의회를 발족하고 통합 프로세스 운영계획을 수립한 해였다. 그 결과 제재 처분 소명절차 과정에서 선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참관인 배제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한 실내훈련을 위해 훈련장과 안전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대면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⑤사회적 가치 제고와 고객 편의 향상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해외유입 유증상자 임시 격리시설로 지원하고 9월부터는 인천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광명 스피드와 미사 경정장에 시내버스 노선을 유치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당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스피드에는 노래하는 분수를, 미사 경정장에는 보행자 연결통로를 설치해(2021년 완공)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유일한 그랜드슬램 달성 심상철...다음 주자는 김종민?

2기 김종민 쿠리하라배 우승엔 영예
김민천은 2개 대회만 추가하면 가능

경정에서의 그랜드슬램은 스포츠월드배, 스포츠경향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쿠리하라배,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대상경주 우승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수뿐만 아니라 경정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있을까.

●'그랜드슬램 달성'은 심상철이 유일

현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경정 최강자'라 불리는 심상철(7기 A1 39세)이 유



심상철

일이다. 초창기 원년 멤버가 아닌 7기 선수로 입문해 정당한 선배들과의 경쟁 속에서 신인 첫해(2008년) 13승이라는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해 많은 경정 팬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2010년 스포츠월드배(2011년부터 스포츠경향배)에서 생애 첫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한 후 총 5회(2010년, 2015~2018년) 출전해 모두 우승했다. 단일 대상경주 최고 승수를 기록 중이다.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2017년 쿠리하라배, 2018년 그랑프리, 2019년 스포츠월드배 우승으로 현재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기록되고 있다.

●김종민, 쿠리하라배만 남았다

김종민(2기 A1 44세)은 심상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경정을 이끌어 가는 대세로 군림했다. 신인 첫해인 2008년 18승을 기록하며 동기생 중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1기 선배들은 경계대상 1호로 주목했다. 김종민의 첫 대상경주 우승은 2004년 그랑프리였다. 전개가 불리한 6코스에서 0.13초로 모터 기록을 활용한 전속 휘감기 전개를 통해 주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우승했다. 2007년 스포츠월드배, 2010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2011년 스포츠경향배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쿠리하라배 특별경정만 남았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회 연속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2012년에만 준우승을 거뒀다. 그의 그랜

드슬램 꿈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두 개의 대상경주 우승을 향해

총 5개 대상경주 중 두 대회에서 우승을 못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 못한 선수도 있다. 김민천(2기 A1 45세)은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2013년 그랑프리, 2015년 쿠리하라배에서 우승했다. 우승을 못한 대상경주 중 스포츠월드배는 총 3회(2011년, 2012년, 2018년) 출전해 2018년 1코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경향배는 총 2회(2007년, 2011년) 출전해 2011년 2코스에서 준우승으로 아깝게 우승을 놓쳤다. 이재학(2기 B1 48세)의 생애 첫 대상경주 우승은 2006년 쿠리하라배다. 2008시즌에는 스포츠월드배와 스포츠경향배 우승을 발판으로 그랑프리 대상경주에 도전했지만 준우승(2008년, 2012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는 총 2회 출전해 2005년 3위 입상을 했다.

정용운 기자

즐거운 TV·독특한 TV...TV프로그램 (30일·수)

채널	시간	프로그램
KBS 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KBS 2	5: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MBC	5:00	UHD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세계 22>
SBS	5:00	좋은아침 스페셜
EBS 1	5:00	왕초보 영어
지역민방	TJB (대전) 042-281-1101	17:50 생방송 특이대
채널 A	4:40	채널A 자진 특집
	4:50	채널A 스페셜 <세계 문화 탐방>
	6:00	TV주치의 닥터 지라
	7:00	브레드 이발소2
	8:00	행복한 아침
	9:20	김진의 돌직구쇼
	10:50	시민 김부회
	12:00	뉴스A LIVE
	1:10	침묵의 아이콘택트 스페셜
	2:30	인생 중간 점검 개뿔다큐 스페셜
	3: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5:20	뉴스 톱10
	7:00	뉴스A
	8:10	관찰카메라24
	9:20	침묵의 아이콘택트
	10:50	인생 중간 점검 개뿔다큐
	12:20	만민 그리고 따라와 도시어부2
	※ 2:20	특별기획 FTA로 여는 K-농업의 미래
	※ 1:30	김스맨
TV조선	4:40	살맛나는 세상
JTBC	5:50	다큐플러스 <로켓넷 차일드 1부>
MBN	5:40	MBN재난대비센터 <코로나 유행상황과 방역소독>
	6:00	특집다큐 <인생을 지키는 힘, NK세력들 놀라라>
	7:00	굿모닝 MBN
	8:00	아침 & 매일경제
	9:20	전국네트워크 뉴스
	9:30	생생 정보마당
	10:20	로보싱어
	12:00	속물쇼 동지미
	3:00	나노스트림
	3:30	나는 자연인이다
	4:40	뉴스파이어
	6:10	MBN뉴스아이드
	7:20	MBN종합뉴스
	8:30	오래 살고 불행
	9:50	나는 자연인이다
	11:00	트럼프타이더
	※ 1:00	문치야 친다 스페셜
	※ 1:00	천기누설 스페셜